

11-9-2014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23:1-6  
본문: 이사야 40:1-11  
제목: 온 땅에 하나님의 위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칠백여 년 후에 이스라엘에 위로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조만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무너지고 성전까지 불타버리는 징계를 받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것이나 칠십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된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나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징계보다 배나 더 징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징계할 때에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신 후에 같은 생각을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같은 이스라엘 땅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가 광야에서 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될 것이다."고 외치게 될 것인 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평탄함이 다시 올 것이라고 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일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나타나시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낼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와 영광으로 나타나실 분은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분만이 죽지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은 계속해서 시온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시온아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오 예루살렘아, 힘써 네 음성을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음성을 높이라고 마지막으로 외친 음성은 장차 그들의 메시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즉 시온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오실 그들의 메시야를 보라고 외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칠백여년이 지난 어느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빛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들의 메시야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 땅에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이분에 대하여 증거하며 광야에서 외쳐 말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요 1:6,7,15,16)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묻는 것에 대하여,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아도 아니라." "그 선지자도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시기 육 개월 전에 미리 나타나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는 그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수백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아오면서 버림받은 민족처럼 살았지만 마침내 전에 그들이 섬기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육신 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고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고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 10:1-6).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대로 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종들인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속아 그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그들은 또 다시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기 원하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잃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수십 년 후에 그들이 섬기는 로마 장군에 의해 다시 한 번 예루살렘에 들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다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 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눅 19:41-44)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은 오로지 단 한 번의 기회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한 이레인 칠년 대환란 끝에 다시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여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기회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주신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주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자 성령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롬 14:17). 뿐만 아니라 위로자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 되셔서 믿는 자속에 계시면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요 16:14).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 로마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단으로 경멸하고 쫓아낸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던 종교지도자들처럼 여전히 유대인들은 큰 바벨론인 로마 교회와 연합하여 그들의 꿈인 시오니즘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교한 하나님의 교회들 역시 하나님의 위로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로마 교회와 융합하는 배교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속이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로 교회들을 인도할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를 주축으로 하는 종교통합 기구이며 국제공산주의자인 WCC(World church counsel) 속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을 끌어들여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동산에서 첫 사람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 역사는 사단에 의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고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큰 바벨론(제 17,18 장)이 될 로마 교회 수중으로 끊임 없이 인도하는 역사로 접철되어 온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만간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위로를 거부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게 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며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벧후 3:9,10)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오직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딤후 4:1,2)고 명령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과 지상에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 되면 이미 때가 늦어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기 전에 목회자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1-9-2014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23:1-6

Main scripture: Isaiah 40:1-11

Subject: What are we supposed to do before the door of the comfort of God is closed?

The LORD God had prophesied unto Israel through prophet Isaiah for sending the Comforter seven hundred years later. Sooner later, the people of Israel were to be chastened by God to lose their kingdom by Babylon BC 606 letting them to destroy their city walls, and to burn their temple; but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Babylon, the comforter of God shall be coming thereafter.

"Comfort ye, comfort ye my people, saith your God. Speak ye comfortably to Jerusalem, and cry unto her, that her warfare is accomplish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for she hath received of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saith the LORD. The LORD God will think of the chastening Israel as much as double then they are to be chastening. As we also are broken heart because of too much chastening unto our children, the God of mercy has the same heart as us.

Finally, prophet Isaiah prophesied, there shall come as man in the land of Israel as wilderness, and shall cry in the wilderness as sa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and the crooked shall be made straight, and the rough places plain." He shall cry unto the land of Israel that is in chaos because of the chastening of God to make it flat again in peace.

And, of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in Israel, prophet Isaiah testified saying,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for the mouth of the Lord hath spoken it." In other word, he prophesied, the LORD Jehovah God that they had worshipped shall appear unto the land of Israel,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shall see him. In other word, their Jehovah God shall be manifested in flesh.

Moreover, the LORD God asked the voice of wilderness to continue to cry saying, "All flesh is grass, and all the goodliness thereof is as the flower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eth, the flower fadeth: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bloweth upon it: surely the people is grass. The grass withereth, the flower fadeth: but the word of our God shall stand for ever." In other word, it was the declaration of the One God that shall appear in the glory of the LORD Jehovah God is the very Word in the beginning as well as only immortal God to live forever.

The voice in the wilderness continued to cry unto Zion saying, "O Zion, that bringest good tidings, get thee up into the high mountain; O Jerusalem, that bringest good tidings, lift up thy voice with strength; lift it up, be not afraid; say unto the cities of Judah, Behold your God!" The final cry unto Zion and Jerusalem is the prophecy that their Messiah shall restore Israel to establish His kingdom in Jerusalem, Zion so that they may see their Messiah upon hearing the cry.

One day, after seven years passed by, a man named as John appeared in the land of Judah to testify their Messiah that is the light and Word of God in the beginning. John testified and cried out unto them in the wilderness saying, "He that cometh after me is preferred before me: for he was before me. And of his fulness have all we received, and grace for grace."(John1:6,7,15,16)

Upon being questioned of himself by them, He testified of himself clearly saying, "I am not the Christ." "I am not Elias." "I am not Jeremiah." "I am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He was born six months before the incarnation of the LORD Jehovah God, and sent by God to the land of Israel to testify him unto the Israel; and he said of himself as the voice in the wilderness. For hundreds years, Israel had been under the kingdom of the Gentiles without their own kings wandering as forsaken people. Finally, the LORD Jehovah God became a man in the name of JESUS to save his people from sins, and to comfort them.

Finally, John the Baptist cried out unto the Jews in the wilderness saying,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att. 3:2) Knowing John was put into Jail, Jesus also preache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att. 4:17) And Jesus called unto him his twelve disciples, he gave them power against unclean spirits, to cast them out, and to heal all manner of sickness and all manner of disease, and commanded them saying, "Go not into the way of the Gentiles, and into any city of the Samaritans enter ye not: 6 But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As God spoke through prophet Isaiah, the Lord Jesus began his ministry of healing to comfort the people of Israel.

But, unfortunately, they were deceived by the servants of Satan such as Pharisees and Sadducees and Scribes rather persecuted Jesus that was their king and the redeemer of their sins through forgiveness, and killed him after all. Even though they were freed from Babylon, now they wanted to worship the emperor of Roman Empire as their only king; and they lost their opportunity of comfort once again. Jesus beheld the city of Jerusalem, and wept over it. And he said unto the city, "If thou hadst known, even thou, at least in this thy day, the things which belong unto thy peace! but now they are hid from thine eyes. For the days shall come upon thee, that thine enemies shall cast a trench about thee, and compass thee round, and keep thee in on every side, and shall lay thee even with the ground, and thy children within thee; and they shall not leave in thee one stone upon another; because thou knewest not the time of thy visitation."

Rejecting the comfort of God, they have only one more opportunity yet. Their only opportunity shall be at the end of the period of the Great Tribulation that was prophesied by Daniel as the one week(7 years). The Lord Jesus Christ will give them another opportunity to repent before him to enter his kingdom.

Nowadays, the Lord Jesus Christ full of grace and truth is willing to comfort whomsoever whether they are Jew or Gentile believe on the gospel of Christ that died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rose again. While Jesus was in the land of Israel, whosoever saw him and believe in him received the eternal life as comfort for them. As Jesus promised unto his disciples before he was lifted to heaven, he sent the comforter that is the Holy Ghost in his name to give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within them that believes on him (Rom. 14:17). In addition to it, the comforter, the Holy Ghost is the Spirit of truth dwelling in the believers to lead all the truth and show things to come (John 16:14).

But, unfortunately, as the religious leaders under Rome at the time of Jesus deceived the people of Israel judging their king, Jesus as a cult only to recognize the emperor of Rome, even nowadays, the Jews are united with Roman church that is the Great Babylon to achieve their dream "Zionism". Not only the Jews, but the churches are also fornicating with the Roman church falling away from the word of God; they are prepared to lead the churches of God unto the Antichrist to come. Almost of the churches of God have been led to WCC that is the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ocialism and the ecumenical movement led by Roman Church.

Yea! Since the first man sinned in the garden of Eden, the human history has been continued with the Satanic movement to make the people of Israel and the churches of God to reject the comfort of God so that the Great Babylon may be able to possess them all through the Roman church.(Rev. 17,18 chapters). The Lord Jesus Christ who cried unto the city of Jerusalem shall appear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o judge all the nations that rejected the comfort of the LORD God weeping over them waiting for their repentance knowing no more chance at all for them upon his coming.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is saying, "The Lord is not slack concerning his promise, as some men count slackness; but is longsuffering to us-ward,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repentance."(2Pet. 3:9,10) And Apostle Paul commanded unto a pastor, Timothy saying, "Charge thee therefore before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who shall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at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2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all longsuffering and doctrine." Upon coming the day of Christ, the day of Rapture when Christ appear in the air, and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for his kingdom, it will be too late to receive the comfort of God anymore. This is the reason why Apostle Paul mentioned about two different days. Amen! Hallelujah!